

눈은 눈으로

(마태복음 05:38-42절 외)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이러한 구약의 말씀의 근본적인 의도는 무엇입니까? 소극적으로는 지나치지 않도록 그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지나쳐서 무질서하여 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다시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된 본성 중의 하나가 복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에 대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질서를 잡고자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쳐서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하였으면 피해자는 절대로 그를 죽여서는 않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눈만 상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형벌 사이의 공평성입니다. 어떤 죄에 대한 적절한 형량이어야지 그것 이상은 안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눈이나 이, 손이나 발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율법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실행하는 재판관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그 소송들을 살펴 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을 결정하였습니다. 개인들이 사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함과 동시에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신가를 깊이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전혀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적인 의도를 알지 못하고 가르쳤습니다. 개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복수를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을 개개인들에게 마치 의무나 권리인 것으로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39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겹옷까지도 가지게 하며/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39-42의 말씀은 한 국가나 국가 사이에, 세계 상황에 적용해서는 안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개인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복수와 보복이 아니라, 십자가가 있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